

고려시기 기비사의 건립과 기능*

조 명 제**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명의 유래와 건립 배경
- III. 사원의 기능과 위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만덕사지’라는 명칭은 충혜왕의 서자인 석기를 유배하였던 만덕사를 부산의 만덕동에 있었던 사찰로 본 추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전근대에 만덕사가 전국에 몇 군데나 존재하였고, 고려시기에는 백련결사의 중심지였던 강진의 만덕사가 유명하다. 정사 기록만으로 석기가 유배된 만덕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부산에 있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더욱이 발굴 조사를 통해 기비사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나왔기 때문에 사찰의 명칭은 만덕사가 아니라 기비사가 옳다.

기비사는 『장아함경』에 붓다가 설법하던 곳에서 유래한 사찰 명칭이다. 이와 비슷한 명칭은 경주에 세운 기원사, 기림사 등이 있으며, 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

* 이 논문은 ‘만덕동사지와 고려시대 부산불교문화’ 학술심포지엄(2021년 7월 2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 때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신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woongok@silla.ac.kr

한 의도에서 비롯된 작명이다. 1178년에 기비사 주지가 금산사 향완을 조성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기비사는 유가종에 소속된 사찰이었다.

기비사가 건립된 배경은 후삼국 전쟁기에 동남해 연안과 낙동강 하류 지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된다. 고려왕조는 후삼국을 통합한 후에 후백제와 세력 다툼을 벌였던 낙동강 하류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비사를 건립하여 주지를 파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비사는 동래와 구포를 연결하는 고개에 있으며, 육로와 수로를 통해 부산, 양산, 김해로 이어지며, 나아가 동남해 항로로 연결되었다. 기비사는 이러한 교통 네트워크와 연관된 원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기비사는 빈민 구제,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를 운용하였다. 한편, 김해의 낙동강 하구(현재 부산 녹산)에 일본과의 외교 기능을 담당하던 동남해도부서가 설치되었고, 일본과의 불교 교류가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기비사는 일본과의 불교 교류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어 : 기비사, 유가종, 사회사업, 보, 낙동강 하류

I. 머리말

‘만덕사지’는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폐사지이다. 종래 절의 명칭을 만덕사로 본 근거는 『고려사』를 비롯한 정사 자료에 공민왕 즉위년(1351)에 충혜왕의 서자인 석기(釋器)의 머리를 깎아 만덕사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에서 비롯되었다.¹⁾ 그러나 부산박물관에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기비사(祇毗寺)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출토됨으로써 사찰의 명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²⁾ 나아가 발굴 조사의 결과로 다

1) 『고려사』 권38, 공민왕 즉위년 12월 신묘, “髡永陵孽子釋器 置萬德寺”, 『고려사절요』 권26, 충정왕 3년 12월.

양한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이 절이 고려시기에 큰 규모의 사찰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만덕동 사지에 대한 문헌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고고학, 국어학 분야에서 제시되었으며, 미술사, 건축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³⁾ 반면에 지역사, 불교사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산의 지역사나 불교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추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⁴⁾

이와 같이 만덕동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지의 발굴 조사와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 분야의 기초적인 연구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래 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와 보고서가 적지 않게 나오지만, 불교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이해와 접근이 부족하다. 앞으로 지역불교사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하나의 학문 영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종합적인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만덕동 사지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만덕동 사지의 명칭에 대해 검토하여 만덕사로 주장한 근거가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비사가 정확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기비사의 유래와 의미가 무엇인지, 소속 종파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나아가 기비사가 건립된 배경이 무엇이며, 사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부산박물관, 『釜山萬德寺址』, 1993; 『釜山萬德寺址 II』, 1998. 복천박물관, 『釜山萬德寺址 III』, 2007.

3) 박경원, 「만덕사지 삼층석탑 복원이건」,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연보』3(1), 1981. 최정혜, 「부산 만덕동사지 사명 고찰」, 『박물관연구논집』 11, 2004. 이근열, 「부산 기비현(基比縣) 말말 연구」, 『지명학』 13, 2007.

4) 정미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사상계의 동향」, 『항도부산』 19, 2003.

II. 사명의 유래와 건립 배경

만덕사라는 사찰은 강진 만덕사(=백련사)를 비롯하여 전근대에 전국 각지에 존재하였다. 만덕사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남 강진, 충남 서천군 대둔산, 금산군 진락산,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대덕산 등에 있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는 권상로가 편찬한 『한국사찰전서』에 소개되어 있다.⁵⁾

권상로는 만덕동 사지에 대해 동래군 좌이면(左耳面) 만덕리(萬德里)에 있는 절이며,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⁶⁾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를 만덕사로 본 기록은 『사탑고적고』가 최초인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찰전서』에 수록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만덕동 사지를 만덕사라고 주장한 것은 석기를 만덕사에 유배하였다는 『고려사』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한국사찰전서』나 그것을 토대로 만든 불교사전의 내용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사』 기록으로는 실제 석기가 유배되었던 만덕사가 어디에 있던 사찰인가를 알 수 없다. 석기가 유배된 후에 공민왕 5년(1356)에 호군(護軍) 임중보(林仲甫)가 석기를 받들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구실로 외지로 쫓겨났고⁷⁾, 석기를 제주 수정사(水精寺)에 보내 안치시키고자 하였다.⁸⁾ 이와 같이 고려 말의 정치적 상황이나 석기를 제주로 유배하고자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석기가 머문 곳은 강진 만덕사가 아

5) 권상로, 『한국사찰전서』(퇴경당권상로박사전서간행위원회, 『퇴경당전서』 2, 1990), 524~527쪽.

6) 이 자료는 1900년에 편찬되었으며, 필사본이 동국대에 소장되어 있다.

7) 『고려사』 권91, 열전4, 종실 釋器,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5년 6월, 『고려사』 권124, 열전 37, 康允忠傳.

8) 『고려사』 권44, 공민왕 22년 12월.

닌가 생각된다. 강진 만덕사는 왕자인 석기를 감시하고 관리할 만한 사찰로서 적합한 곳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러한 추측과 상관없이 정사 기록에 만덕사의 위치를 동래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 다시 말해 문헌 자료로 보아 현재 만덕동 사지를 만덕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만덕동 사지를 만덕사로 보는 것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제시된 견해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3차례의 발굴 조사에 따라 기비사라는 명문 기와가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에 만덕동 사지는 기비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비사라는 특이한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이근열은 기비현(其比峴)이 기비사보다 오래된 지명이며, 기비사라는 절 이름은 이 지역의 고유 지명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지명을 사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선종 사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개 중국 선종과 인연이 깊은 지명, 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개 이름인 기비현에서 기비사라는 사명이 나왔다는 주장은 사찰 이름의 일반적인 유래를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다. 또한 이 주장은 고려시기 지역사, 불교사에 대한 이해와 거리가 먼 설명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필자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사찰 명칭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해 보았지만 기비사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기비라는 용어를 한역 대장경에서 찾아보니 몇 종의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대수구다라니(大隨求陀羅尼)』를 비롯한 몇 종의 다라니 경전에 서술된 용어는 사찰 명칭과 관계가 없다. 지명과 관련된 용어는 『불설장야함경(佛說長阿含經)』 권8에 나열기 비하라산이라는 표현이 유일

9) 이근열, 앞의 논문, 230쪽.

하다.¹⁰⁾ 나열기는 Rajagaha의 음사이며, 나열성(羅閼城)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중인도에 있던 도시 이름이며, 붓다가 설법을 하던 곳의 하나로 한역 불전에는 왕사성(王舍城)으로 번역되어 있다. 비(毗)와 비(毘)는 통용되는 문자이며, 비하라(毘訶羅)는 vihāra의 음사인데, 유행처(遊行處), 주처(住處), 사(寺), 승방(僧坊) 등으로 한역된다.¹¹⁾ 그러므로 기비사는 붓다와 직접 연관된 대표적인 설법처 또는 사찰과 관련된 이름이다.

초기 불교의 붓다와 관련된 사명은 기원정사가 잘 알려져 있다. 이 명칭에서 유래한 사찰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신라불교에서는 진흥왕 27년(566)에 경주에 창건되었던 기원사(祇園寺)¹²⁾와 신문왕 이전에 창건되었던 기림사(祇林寺)¹³⁾가 대표적인 명칭이다. 기원사는 수달타(須達) 장자가 사재로 기타(祇陀) 태자의 원림인 기원을 사서 붓다를 위해 세운 절이다. 기림사는 붓다를 위해 세운 기원정사가 있는 숲을 가리키는 기타림(祇陀林)이라는 지명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이러한 사찰 이름은 모두 붓다와 연관된 지명, 사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명 방식은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이 오래 되었다는 주장이나 신라불국토설을 제기한 흐름과 연관된다. 또한 해당 사찰이 불교의 정통성이나 사찰의 신성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러한 사명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기비사라는 이름은 기원사, 기림

10) 『大正新脩大藏經』 권1, 47쪽, “一時 佛在羅閼祇毗訶羅山七葉樹窟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11) 中村元, 『佛教語大辭典』, 東京書籍, 1975, 1133쪽.

12) 『三國史記』 권4, 眞興王 27년, “春二月 祇園實際二寺成”

13) 기림사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祇林寺重創記』를 비롯한 사적기 3종이 남아 있으나, 모두 조선후기의 기록이고 고증이 필요하다. 다만, 『三國遺事』 권2, 紀異2, 萬波息笛조에 神文王이 기림사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기림사는 신문왕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림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박용진, 『경주 기림사의 창건과 역사』, 『남도문화연구』 33, 2017 참조.

사 등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기비사를 건립한 주체나 종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기비사를 김해, 창원 지역에 존재하였던 구산선문의 하나인 봉림산문과 관련된 선종 사찰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¹⁴⁾ 다만 이러한 주장은 기비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아니며, 막연한 추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신라말 고려 초의 불교사를 지나치게 선종사 중심으로 바라보는 통념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대정(大定) 18년(1178)에 조성된 금산사(金山寺) 향완(香完)의 명문 기록은 기비사의 소속 종파가 무엇인가를 찾는 실마리가 된다. 이 명문에 금산사 미륵전에 안치한 향완을 조성한 주체로 기비사 주지 삼중대사(三重大師) 혜거(惠据)가 기록되어 있다.¹⁵⁾ 금산사는 백제불교를 대표하는 사원의 하나이며, 진표가 활동하였던 유가종 사원이었다. 고려시기에도 금산사는 유가종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존재하였다.¹⁶⁾ 기비사 주지인 혜거가 금산사 향완을 조성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기비사는 유가종에 소속된 사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기비사와 같은 사명의 유래를 가진 기림사가 고려시기에 유가종 소속이라는 사실도 종파 문제의 해명에 도움이 된다. 유가종의 자정국존(慈淨國尊) 미수(彌授, 1240~1327)의 비문에 그의 문도로 기림사 주지 원지대사(圓智大師) 행영(行英)과 유가종 소속 사원으로 기림사를 비롯하여 원흥사, 천신사, 현화사, 중흥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⁷⁾ 또한

14) 정미숙, 앞의 논문, 125~128쪽. 채상식, 『웅장했던 불교의 희미한 기억 만덕사지』, 『부산,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2005, 103쪽.

15) 허홍식 편, 『韓國金石全文』(이하 『전문』) 中世下, 아세아문화사, 1984, 844쪽, “大定十八年戊戌五月日 造金山寺大殿彌勒前 青銅香完 臺具都重二十斤 入銀八兩 棟梁祇毗寺住持三重大師惠据 金山寺大師仁美 京主人郎將金令候妻崔氏伊次加女納絲殿前尚乘府內承旨同正康信 鑄成高正”

16) 유가종은 유가업, 자은종, 법상종 등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유가종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17) 李叔琪 撰, 『高麗國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銘并序』, 『전문』 중세하, 1156쪽, “今

충숙왕 복위 5년(1336) 8월에 제작된 『화엄경』 사경은 기림사 주지인 선지(善之)가 밀직부사를 역임한 임서(任瑞)와 함께 발원한 것이다.¹⁸⁾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기림사가 고려 말까지 유가종 소속 사원이며, 사찰의 위상이 여전히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비사가 금산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찰이고, 유가종 소속의 기림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건립된 사찰이므로 유가종에 소속된 사찰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기비사는 언제 창건되었고, 건립을 추진한 주체는 누구일까? 나아가 발굴 조사로 확인된 금당지의 규모로 보아 기비사가 어느 정도 큰 사찰로 건립되었는데, 누가 건립을 후원하였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함께 고려 불교사와 정치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비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로 출토된 기와의 종류, 양식 등을 검토하여 통일신라로 보는 견해와 고려 초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김기민은 사찰의 창건 시기를 8세기 대까지 소급된다고 추정하였다.¹⁹⁾ 그는 만덕동 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일반적으로 중판 선문 타날한 기본기와와 복고적인 문양의 단판연화문 수막새, 다수의 당초문

上膺內禪之元年秋八月 門人慈恩教觀元興寺住持都僧統大師居玄 祇林寺住持圓智大師行英 天神寺住持通玄大師冲瑞 玄化寺住持慈眞圓妙□□□□等 三百一十四人 齋師行狀 申乞戴珙”

18) 『大方廣佛華嚴經』 권60, 卷末識語, “比丘善之 與密直副使任瑞 知識雲山 同發誓願 普集衆緣 以黛紙銀泥 倩人書寫 是經三本 流通供養 以此功德 仰願王年有永 國祚延 供 於此善根 或捨納財賄 或設供養 乃至讚歡隨喜 凡有緣者 生生世世 得大自在行普賢行 證如來智 盡衆生界 一時成佛者 至元二年丙子八月日誌 功德主 祇林寺住持大禪師善之 前密直副使上護軍任瑞 奉聖寺住持大師孜西 禪師雲其 禪師萬一 緣化比丘雲山明”(권희경, 『고려의 사경』, 글고운, 2006, 83쪽에서 재인용).

19) 김기민,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출토 기와」, 『부산 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 부산박물관, 2015, 262쪽.

암막새가 출토되었고,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귀면와, 치미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이 분야에 문외한이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기와의 양식 구분으로 편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기와 양식도 고려시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와 양식만으로 편년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김기민의 견해와 달리 최정혜는 만덕동 사지에서 발굴된 기와는 고려 초기에서 후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기와의 편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기비사의 창건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만덕동 사지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한 연구는 불교사의 이해와 관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신라 중대 이후에 사원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신라 중대 이후에 사원이 경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화엄십찰(華嚴十刹)과 같이 화엄종의 주요한 사찰이 삼국 통일 이후에 건립되었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 지역에는 범어사가 화엄십찰의 하나로 9세기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범어사의 규모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없지만, 화엄십찰의 하나인

20) 최정혜,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기와」, 위의 책, 276~290쪽.

21) 1700년에 간행된 『梵魚寺創建事蹟』에 수록된 「古蹟」에 범어사는 당 太和 19년, 신라 興德王 때(826~836)에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梵魚寺誌』, 아세아문화사, 1989, 15쪽). 또한 「事蹟」과 「古蹟」에 모두 왕이 의상을 맞이하여 왜구의 침략을 물리쳤고, 범어사를 세웠다는 창건 설화가 실려 있다. 그런데 태화 연간(827~835)이 9년으로 끝나므로 태화 19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상(625~702)이 9세기 전반인 흥덕왕 때에 범어사를 창건하였다는 기록도 사실과 다르다. 『삼국유사』와 최치원이 쓴 『法藏和尚傳』에 기록된 화엄십찰 가운데 의상이 직접 세운 절은 부석사이며, 나머지 절은 의상의 문도가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범어사에 남아 있는 3층석탑과 석등이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창건 시기는 9세기로 볼 수 있다.

만큼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범어사가 불교신앙뿐만 아니라 산악신앙을 비롯한 민간신앙을 포괄할 수 있는 금정산이라는 부산의 주산에 건립되었던 만큼 부산 지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사찰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범어사보다 빠른 8세기에 기비사가 건립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였을까? 기비사가 자리한 상학산과 주변의 지리적 위치가 동래군(東萊郡)이나 동평현(東平縣)의 중심과 거리가 멀다. 더욱이 신라 중대에 동래군은 이웃의 김해소경(金海小京)이나 양주(良州)에 비해 지역의 위상이 낮았다. 아울러 대국통(大國統)인 자장이 7세기에 계율의 근본도량으로 건립한 통도사가 인근의 양주를 대표하는 대사찰로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통도사, 범어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존재하였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범어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기비사가 8세기에 창건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비사가 건립되었던 배경과 주체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앞서 필자는 기비사가 유가종 소속의 사찰이라고 밝혔으므로 당연히 건립 주체가 유가종이다. 다만 유가종이라는 종파의 차원에서만 건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찰 건립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후원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비사가 건립된 배경과 시기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고려불교사, 정치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창건 배경에 대해 추측해보기로 한다.

후삼국 시기에 후백제는 태봉, 고려와 서남해 일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 낙동강 일대 등에서 패권을 다투는 전투를 거듭하였다. 왕건은 궁예 정권에 귀부한 후에 서남해 일대의 전투와 낙동강 하류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고려사』에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태조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부터 광주(光州) 경계까지 금성군(錦城郡)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10여 군현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이에 금성을 고쳐 나주(羅州)라 하고 군사를 나누어서 지키게 하고 돌아왔다. 이 해에 양주수(良州帥) 김인훈(金忍訓)이 위급함을 알려오자, 궁예가 태조에게 가서 구원하도록 명령하였다. 태조가 돌아오자 궁예가 변경의 일을 물으니 변방을 안정시키고 영역을 개척할 전략을 아뢰었다. 좌우 신하가 모두 태조를 주목하게 되었고, 궁예도 역시 기특하게 여겨 품계를 올려 알찬(閼縵)으로 삼았다.²²⁾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왕건은 전횡의 초기 세력 기반이었던 나주 일대를 장악하였고, 이어 김인훈의 구원 요청에 따라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공략하였다. 왕건이 서남해 일대를 장악한 사실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언급하였지만, 김인훈의 구원 요청에 대한 문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²³⁾ 그러나 이 지역은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주요한 루트의 하나이며,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태봉, 고려가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고려가 건국된 후인 920년에서 929년까지 후백제가 낙동강 일대의 경북 북부 지역과 경주와 인접한 지역을 주로 공격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다. 920년에 전횡이 대량(大良, 현 합천, 이하 마찬가지), 구사(九思, 초계)를 공략하고, 이어 진례로 진격하였다. 이어 후백제는 924년과 다음해에 조물성을 공략하였고, 925년에 거창 등 20여 성을 공격하여 장악하였다. 나아가 927년에 후백제는 경주와 가까운 고을부(高鬱府, 영천)를 공격하였고, 경주까지 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으로 교체하였다. 이때 왕건이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내려오다 공산(公山)에

22) 『고려사』 권1, 태조 天復 3년 계해 3월, “自西海抵光州界 攻錦城郡拔之 擊取十餘郡縣 仍改錦城爲羅州 分軍戍之而還 是歲 良州帥金忍訓告急 齋令太祖往救 及還 齋問邊事 太祖陳安邊拓境之策 左右皆屬目 齋亦奇之 進階爲閼縵”

23) 이종봉, 「나말여초 양주의 동향과 김인훈」, 『지역과 역사』 13, 2004 참조.

서 전투를 벌였으나, 후백제의 대승으로 끝났다. 이후 930년에 고려가 고창(古昌, 안동) 전투로 전세를 역전시키기 전까지 후백제는 낙동강 일대의 지역을 대부분 지배하였다.

나아가 후백제는 남해안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였다. 924년에 견훤이 왕건에게 절영도의 총마(驄馬) 1필을 보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후백제는 남해안 지역을 장악하였다. 왕건은 927년에 수군을 보내 강주(康州) 관내의 전이산(轉伊山, 남해), 노포(老浦, 광양), 평서산(平西山, 남해), 돌산(突山, 여수) 등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928년에 서남해상의 주도권은 후백제로 기울어졌고, 후삼국 통합까지 해상 제해권을 둘러싼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이 계속되었다.²⁴⁾

이러한 전투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낙동강 하류의 김해, 양산 지역과 인근의 남해안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아울러 이 지역의 호족 세력은 후삼국 통합 과정에서 후백제와 고려에 쉽게 편입되지 않고, 세력의 추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예를 들어 김해, 창원지역에서는 호족 세력을 대표하던 소율희 형제가 몰락하고, 후삼국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영역 귀속이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오락가락하였다.²⁵⁾ 이와 같이 김해의 호족이 고려에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태조 23년의 지방 개편에서 김해소경에서 김해부로 위상이 격하되었다.²⁶⁾

이러한 경향은 부산 지역도 비슷하였다. 고려시대에 부산의 영역은 대체로 동래현, 기장현, 동평현 등으로 나누어졌다. 현종 9년에 동래군은 동래현으로 위상이 격하되어 울주의 속현이 되었고, 동평현이 양주

24) 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1993, 59~77쪽.

25)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봉림산군」,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178쪽.

26) 구산우, 「고려시기 김해의 지방행정구조」,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74쪽. 김해는 삼국 통일 후에 소경으로 책정되어 지역 거점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고려시기에 김해는 위상이 하락하여 東京(경주)의 행정 지배를 받는 5개 주현 중의 하나로 편성되었다.

의 속현이 되었다. 고려 중기에 동래현이 다시 주현으로 승격하였으나 위상이 높지 않았다.²⁷⁾

고려왕조는 후삼국을 통합한 후에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지역을 재편하면서 호족 세력의 영향력을 제어하면서 지역 지배를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는 후백제와 세력 다툼을 치열하게 벌였던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 김해, 양산 등의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후삼국을 통합한 후에 지방관을 제대로 파견하지 못하였던 현실에서 개경과 가장 먼 곳인 이 지역의 지방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고려 왕조는 그러한 방안으로 새롭게 사원을 건립하여 주지를 파견하였다. 태조는 즉위한 다음해에 개경에 천도하고, 10사를 비롯한 26곳에 사찰을 창건하였다. 이러한 사원의 건립은 개경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훈요십조’에 선교사원(禪敎寺院)을 창건하고 주지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은 이러한 양상을 보여준다.²⁸⁾ 주지 파견은 지방관이 상주하지 않았던 후삼국 통합 직후에 지방관의 파견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²⁹⁾

따라서 고려왕조가 부산, 양산, 김해를 아우르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지배와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비사를 건립한 것으로 짐작된다. 태조는 후백제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나 전략적인

27)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기구」, 『항도부산』 20, 2004 참조.

28) 『고려사』 권1, 태조 26년 4월, “御內殿 召大匡朴述希 親授訓要曰…(中略)…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29) 김형수, 「고려전기 사원전경영과 수원승도」, 『한국중세사연구』 2, 1995, 76쪽. 또한 당시 사원에는 어느 정도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수원승도가 평상시에 노역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사』 권81, 兵志1, “國初 內外寺院 皆有隨院僧徒 常執勞役 如郡縣之居民 有恒産者 多至千百 每國家興師 亦發內外諸寺隨院僧徒 分屬諸軍”

요충지에 사찰을 건립하거나 후원하였다. 936년에 고려가 후백제와의 전쟁을 마무리한 후에 연산(連山, 논산)에 개태사(開泰寺)를 창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⁰⁾

이러한 사례는 태조가 삼국을 통합한 후에 두운(杜雲) 선사가 머무르던 초암에 불과하던 곳에 재산과 기와를 내려 30칸 건물을 짓고, 주현의 조세 150석을 매년 지급하여 용문사(龍門寺)를 실질적으로 개창하였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³¹⁾ 관련 자료가 많지 않지만, 고려와 후백제가 전투를 벌이거나 충돌한 지역에서 고려에 전략적, 군사적 도움을 주거나 고려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원의 사례로는 김천의 직지사(直指寺)³²⁾, 밀양의 봉성사(奉聖寺)³³⁾, 합천의 해인사(海印寺)³⁴⁾ 등이 있다.

따라서 기비사는 개태사와 같이 태조가 직접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가 아니라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후백제와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낙동강 하류 지역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원의 건립에는 불교 신앙이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의 호족 세력이나 지역민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30) 『고려사절요』 권1,太祖神聖大王 23년 12월, “開泰寺成 命設落成法會 親製疏文” 『神聖王親製開泰寺華嚴法會疏』, 『同人之文四六』 권8(『고려명현집』 5, 성균관대학출판부, 1987, 89~91쪽).

31) 李知命 撰, 『重修龍門寺記』, 『조선금석총람』(이하 『총람』) 상, 408~409쪽, “昔新羅禪師杜雲與梵日國師 乘桴入唐傳法 而還乃卜茲地 芟夷荊榛 始締草庵 精勤且久 我太祖舉義旗 有并吞三國志 興兵弔伐 至山下 聞師名 入洞尋之 駐車庵前 頂禮以伸密約 及定天下 降勅鳩財陶瓦 凡架屋三十間 併給州縣稅租 每歲一百五十石 以爲供養資”

32) 趙宗著 撰, 『金山黃岳山直指寺事蹟碑銘并序』, 『총람』 하, 960쪽, “能如大師 當麗祖仁同之役 以神力濟之 又能預告克敵之期 麗朝統合後 作大伽藍于茲以報”

33) 『三國遺事』 권4, 寶壤梨木, “初師入唐迴 先止于推火之奉聖寺 適太祖東征至清道境 山賊嘯聚于犬城 驕傲不格 太祖至于山下問師以易制之述 師荅夫犬之爲物司夜而不司晝 守前而忘其後 宜以晝擊其北 祖從之 果敗降 太祖嘉乃神謀 歲給近縣租五十碩 以供香火 是以寺安二聖眞容 因名奉聖寺 後遷至鵲岬而大創終焉”

34) 『가야산해인사고적』, 『조선사찰사료』 상, 495~496쪽.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왜 유가종의 사찰을 건립하였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당시 불교계의 동향이나 지역의 현실과 관련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김해, 창원지역에 구산선문의 하나로 존재하였던 봉림산문의 대표적인 선승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후삼국 전쟁을 거치면서 봉림산문이 쇠락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산, 양산 일대에는 통도사, 범어사와 같은 교종 사찰이 신라 중대 이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고려 초에 국가의 관심은 선종보다 다시 화엄종, 유가종으로 차츰 옮겨갔다. 유가종은 신라 중대에 화엄종과 쌍벽을 이룬 종파이며, 경주에 기림사, 불국사 등이 고려시기까지 존속하였다. 더욱이 팔공산 동화사, 창원 남백월사 등 인근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던 사찰이 존재하였다.³⁵⁾ 따라서 고려 국가는 개경에서 가장 먼 지역인 낙동강 하류 지역의 안정적인 지배와 민심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유가종의 사찰로 기비사를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Ⅲ. 사원의 기능과 위상

앞서 기비사의 건립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고려시기에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사원의 사상적,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고려시기 부산지역이 갖는 위상, 불교사의 흐름 등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발굴 조사의 성과에 따라 기비사는 고려 초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차례 중, 개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 초에

35)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218~219쪽.

부산 지역의 위상이 격하되었고 유력한 지방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관심과 후원을 받아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시기의 자료이지만 창녕의 인양사(仁陽寺)가 건립되는 과정이 참고할 만하다. 인양사 비문에 의하면 혜공왕 7년(771)에 인양사의 종을 완성하고, 이어 선덕왕 3년(782)에 배례석을 완성하고, 금당을 수리하였다. 이후 원성왕 원년(785)에 무상사(無上舍), 애장왕 4년(803)에 불상, 2년 후에 금당이 완성되었고, 나머지 불사를 헌덕왕 2년(810)에 마쳤다. 또한 40년에 걸친 인양사의 탑과 금당을 건립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곡식 15,595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⁶⁾ 인왕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지역의 사원에서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40년 이상 소요되었다. 따라서 기비사의 건립 과정도 수십 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고, 이후 증축과 개축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기비사는 사원의 일반적인 기능과 함께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기비사가 유가종 소속이라는 사실, 명문 기와 자료 등과 함께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신라 하대에 정치적 혼란과 함께 흉년과 굶주림이 잇달아 일어났고, 그에 따른 유민과 도적의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그리하여 당시를 말세로 보는 말법(末法) 의식이 유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종교적인 구원을 바라는 흐름이 미륵하생신앙의 성행으로 드러났다. 궁예, 견훤이 미륵신앙을 표방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후백제에서는 금산사와 미륵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이 추구되었다.

따라서 기비사의 경우에도 유가종 사원으로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

36) 조동원 편저, 『한국금석문대계』 4,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241쪽.

기 위해 미륵신앙이 중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굴 조사를 통해 기비사의 금당지 규모가 기단을 기준으로 24.9×20.4m라는 사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모는 신라 왕실에서 건립한 감은사지의 금당지 24.1×17.5m보다 크다.³⁷⁾ 금당 규모가 큰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기비사가 유가종 사원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가종 사원은 대개 미륵불을 주불로 안치하고 미륵신앙을 표방한다. 그런데 미륵신앙을 표방하는 대사찰은 대개 거대한 불상이나 탑을 조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기비사는 규모가 큰 미륵불상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금당을 크게 건립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비사가 낙동강 하류 지역의 안정과 민심 수습이라는 국가의 관심에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한편 고려국가의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지방 지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에 기비사의 주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낙동강 하류와 동남해안을 포괄하는 교통로와 연관된 기능이다. 이 지역은 고대 이후 대외 교류와 함께 해상 교통로의 요지로서 주목을 받았다. 남해안 지역의 해상 교통로는 포상팔국의 난 이후 북방-동해안-신라-남해안-금관국-왜로 이어지는 동남해 연안 해로가 해상 교역의 주요 교통로로 부상하였다. 또한 9세기에 일본에 이르는 장보고 바닷길은 청해진에서 남해안 해로를 따라가다가 대한해협을 건너 쓰시마를 거쳐 큐슈 하카다로 입항하였다.³⁸⁾

따라서 낙동강 하류 지역과 인접한 남해안 지역은 수로, 해로를 통한

37)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 보고한 『한국고대건축의 기단』 I, II(2012, 2013)에 고대, 중세 사원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38)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도서문화』 36, 2010 참조.

교통 네트워크로 존재하였다. 고려시대에 역제(驛制)와 조운은 국가 운영의 기반 제도로 기능하였다. 고려 국가는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조운 제도의 원활한 운용, 일본과의 교섭을 위한 거점의 유지 등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신라시기에 대규모의 조세 운송에 적합한 해운 활동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육로를 통한 조세운송 활동을 위해 내륙하천 수운을 적극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서를 잇는 육상교통로의 편성을 위해 남북으로 흐르는 낙동강변의 주요 교차 지점에 도하 시설이 다수 분포하였다. 당시 낙동강의 주요 나루로 황산진(黃山津), 가야진(伽倻津, 양산), 가혜진(加兮津, 고령), 가야진(伽倻津, 창녕 영산), 매리포(買利浦, 함안 칠원) 등이 확인된다.³⁹⁾ 이들 도하 시설은 주요 육상 교통로를 이어주는 역할과 함께 군사·치안 업무와 관련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검문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⁴⁰⁾

남강과 합류한 낙동강이 흐르는 하류 유역은 금주를 중심으로 편성된 금주도(金州道)가 밀양 일대까지 분포하였다. 이 교통로에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나루로 멸포(蔑浦), 주물연진(主勿淵津), 뇌진(磊津) 등과 양산의 가야진, 황산강(黃山江) 등이 있었다.⁴¹⁾ 고려시기에 석두창(石頭倉)으로의 조세 운송에 금주도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낙동강 유역의 나루가 활용되었다.⁴²⁾

이와 같이 고려시기에 낙동강 하류와 동남해 연안이 수로, 해로 교통

39)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한정훈, 「고려·조선초기 낙동강유역 교통 네트워크 연구」, 『대구사학』 110, 2013 참조.

40)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2013, 40~41쪽.

41) 한정훈, 앞의 논문, 122~125쪽.

42) 한정훈, 위의 책, 204~205쪽. 이러한 양상은 임춘(林椿)의 밀주(密州, 밀양)에서 놀던 일을 묘사한 시에 “들이 기름져 해마다 풍년이고, 길이 당겨져 배, 수레 모이니”(『西河集』 권2, 「遊密州書事」, 『한국문집총간』(이하 『문집』) 1, 225쪽, “山郡多佳麗 名高冠一方 地靈人自傑 野沃歲頻穰 路控舟車會”)라는 표현에서 배를 통한 수로 운송이 활발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⁴³⁾ 그런데 이러한 낙동강 교통로를 중심으로 김해의 감로사(甘露寺), 영립암(靈立庵), 밀양의 영남사(嶺南寺), 양산의 임경사(臨鏡寺)를 비롯한 사찰이 존재하였다.⁴⁴⁾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기비사는 낙동강과 가까운 곳인데다가 동래에서 구포로 넘어가는 고개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기비사는 부산, 김해, 양산, 밀양에 이르는 낙동강 수로를 따라 존재하였던 일련의 사찰과 함께 낙동강과 동남해 연안의 교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원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주지하듯이 고려시기에 교통로의 요지에 존재한 사찰의 기능은 원으로 대표된다.⁴⁶⁾ 역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여행객만을 위한 시설이었고, 일반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는 원이 존재하였다. 원의 건립과 운용은 불교계가 중심이 되었다. 고려시기에 여행객은 강도가 출몰하고 맹수의 위협이 있으며, 하천과 늪, 산을 경유하는 이동의 어려움

43) 현존하는 기록에 고려시기에 낙동강 포구 가운데 東院津이 가장 남쪽에 존재하였다. 현재 부산시 북구 금곡동의 낙동강변에 있었던 동원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건물지 2동 담장, 석조 시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물지는 역원으로 추정되며, 동래, 구포, 물금, 양산을 잇는 교통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경남문화재연구원, 『釜山 金谷洞 東院址』, 2006, 125~126쪽). 다만 후술하듯이 현재의 녹산에 일본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동남해도부서가 있었으므로 동원 아래의 낙동강 하구에도 포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4) 문화재청·(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사지총람』 하, 2010, 349~352쪽·359~360쪽·374쪽.

45) 고려시기에 남한강 유역의 여주, 충주, 원주 등에 신록사, 정토사, 법천사, 거둔사 등 규모가 큰 사찰이 존재하였으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해 낙동강 유역의 사원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사례이지만 1635년에 趙任道(1585~1664)가 칠원에서 김해까지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유람하는 여행기에서 감로사를 이용하고 묘사한 기록이 주목된다(『潤松集』別集1, 遊觀錄; 『문집』 89, 147~152쪽). 향후 교통로와 관련하여 낙동강 하류 지역의 사원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6) 이병희, 「고려시기 원의 조성과 기능」, 『靑藍史學』 2, 1998, 김병인, 「고려시대 사원의 교통기능」, 『전남사학』 13, 1999, 최연식, 「고려시대 원관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 2016 참조.

을 겪었다. 그리하여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민가와 떨어진 곳에 원을 세워 여행자에게 여행의 안전과 숙식의 해결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⁴⁷⁾



<그림 1> 海東地圖 東萊府 部分(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러한 원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도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1198년에 이규보가 쓴 ‘현종원증창기’에 김해부 아전이 가산을 제공하여 구암사(龜巖寺) 승을 시켜 교통로의 요지에 있던 현종원(懸鍾院)을 증창하여

47) 중국불교에서 원의 유래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唐代에 오대산 순례자를 위해 특설된 휴게소, 숙박소인 普通院에 대해서는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30리마다 원에서 식사, 숙박을 하였던 기록이 있다. 또한 오대산에서 태원부를 지나 장안에 가는 길에도 보통원이 존재하였는데, 10리 내지 30리 간격으로 21곳의 보통원이 있었다(鎌田茂雄, 『中國佛教史』 제6권 隋唐의佛教, 東京大學出版會, 1999, 138~144쪽, 이유진, 『唐代 求法僧의 숙박시설-円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22, 2009 참조).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⁴⁸⁾ 이 글에서 남쪽 바다의 뚝단배가 준비하고, 동서로 왕래하는 이들에게 휴식과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남해가 바라보이는 낙동강 수로의 나루와 가까운 곳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기비사의 경우도 원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비사는 사회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덕동 사지에서 발굴된 기와 명문 가운데 보(寶)는 그것을 방증하는 문자 기록으로 추측된다.⁴⁹⁾ 고려시기에 보는 주로 특정한 불사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많지만, 사원의 다양한 경비 지출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고려시기의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 기능과 함께 각종 사회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하였다.

고려시기에 사원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였는데, 유가종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보시 활동에 나섰던 사실이 주목된다.⁵⁰⁾ 예를 들어 증지수좌(證智首座) 관오(觀奧)는 오산원(鰲山院)에

48) 『東國李相國集』 권24, 「懸鐘院重勅記」, “懸鐘院者 南路之要會也 頽壤寢久 行人不得宿 則東西往來者病之 金海府吏某甲 慨然有肯構之志 悉罄其家貨 使龜巖寺浮屠某句當之…(中略)…南望蒼海 桅檣相望 西望墟落 村閭撲地”

49) 명문이 寶인지 三寶인지 확실하지 않다. 삼보는 일반적으로 불보, 법보, 승보를 아우르는 보통명사이다. 그러나 창녕의 仁陽寺碑와 같이 사원보와 같은 의미로 기록된 경우가 있으므로 기비사의 명문 기와도 사원보의 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양사비에는 無盡(?)倉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無盡藏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최연식, 「仁陽寺碑」,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36~237쪽, “壬午年 仁陽寺 三寶中 入食九百五十四石…(中略)…己丑年 常樂寺 無盡倉成 庚寅年 同寺 無口倉(舍?)成”).

50) 이병희, 「고려시기 불교계의 보시활동」, 『선문화연구』 4, 2008; 『고려시기 사원경제연구』. 경인문화사, 2008, 316~317쪽. 일본 고대불교에서 유가종을 대표하는 교기(行基, 668~749)와 그를 따르는 집단(行基集團)은 포교 거점이 교통로에 위치하였다. 또한 이들은 곤궁한 민중과 인과 설법을 결합시킨 포교 형태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 저수지, 선착장, 수로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시행하였다(勝浦令子, 『日本古代の僧尼と社會』, 吉川弘文館, 2000, 329~343쪽). 불교의 사회사업은 유가종과 같은 특정한 종파에 한정되지 않지만, 왜 유가종이 사회사업에 관

서 겨울 동안 길을 왕래하는 승려와 일반인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였다.⁵¹⁾ 현화사의 각관승통(覺觀僧統)은 젊은 시절부터 삼보를 경영하여 많은 불사를 시행하고 널리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를 삼았기 때문에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⁵²⁾ 혜소국사(慧昭國師) 정현(鼎賢)은 광제사에서 굶주린 민을 구휼하였다.⁵³⁾ 도생승통(道生僧統) 탕(鎭)은 속리사 주지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민을 위해 크게 베풀었다.⁵⁴⁾

기비사가 유가종 소속이었고, 교통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원이었으므로 다양한 사회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⁵⁾ 기비사에 운용된 보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의 조성은 국가의 지원이나 지방 세력, 지역민의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992년에 김해에서 쌀 6섬과 소금 4섬을 말과 소에 싣고 중생사에 시주를 하였던⁵⁶⁾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을 갖고 적극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1) 『證智首座觀興墓誌銘』, 『전문』 中世上, 759쪽, “翌年大設三冬施與于鰲山院 指南大路 行旅往來 僧俗男女 □□□幼 下至服乘之畜 飢者食焉 渴者飲焉 無不充足飽煖 其惠澤□□□□物 不知其幾千萬億也”
- 52) 『玄化寺覺觀僧統墓誌銘』, 『전문』 중세하, 830쪽, “師自少已來經營三寶 施作佛采 博施濟衆 以爲己任 故自國君 至於朝市山村道俗□□ 悉皆歸仰”
- 53) 金顯 撰, 『贈諡慧昭國師碑銘并序』, 『전문』 중세상, 490~491쪽, “重熙甲申歲 於廣濟寺門前 列鼎饗飪 以待餓人 指千困而可蠲 施百斛而無恢 有一□□□□□喜機幹踴赴會…(중략)…乙酉歲 開冊三角山沙峴寺 館茲地也 虎狼所畜 賊寇頗多 嘯凶殘則甚于潢池 萃連逃則蔚爲淵藪 自□□□實岐路之要衝 揭篋擔囊 奈往□之多 梗□□□□□將救險難 夷曷鹵之田 構成梵宇 □□馳之徑 起立蓮廬 縹瓦欲翔 重關對豁 牛檀薰而匪歇於□□數里 □香雲 象馬坌而交犇□下 列百重之寶肆則彼綠林青犢 □□□□劫人 鉤爪鋸牙 不敢咆哮而容物 上適從願輻 妙揀朝端 乃令司天丞潘周寶相地 殿中丞□□儉書額 院曰弘濟 館曰棲仁 □欲開置檀 施貨賄牛馬 寔惟紛纒”
- 54) 『고려사』 권90, 宗室 道生僧統鎭, “鎭財累鉅萬 厚施於人 故貪利者多附之”
- 55) 唐代 불교의 사회사업은 토목사업과 빈민, 환자를 구제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화엄종의 法藏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에 八福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도로, 우물, 수로, 교량을 만드는 것과 함께 환자, 곤궁한 이에게 공양하는 것, 무차대회를 설하는 것이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鎌田茂雄, 앞의 책, 111~144쪽).
- 56) 『三國遺事』 권3, 三所觀音衆生寺, “後十三日 忽有二人馬載牛馱到於門前 寺僧出問

인근 지역의 다양한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낙동강 하류 지역과 남해안 지역은 해상세력의 포섭, 일본과의 교류와 관련된다. 10세기 초에 후백제와 고려는 활발한 대외 통교를 전개하였는데, 일본에 대한 교섭도 마찬가지였다. 후백제는 922년 6월에 처음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견훤은 일본정부와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⁵⁷⁾ 고려는 태조 20년(937)에 처음으로 첩(牒)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 각각적으로 일본과 외교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

다만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는 포로, 표류민의 송환을 위한 교섭이 일정하게 이어졌다. 현종 10년(1019)에 도이(刀伊)라고 불린 여진족이 쓰시마, 잇키를 거쳐 하카다까지 침입하였는데, 고려가 이들을 동해안에서 격퇴하고 일본인 포로를 일본에 송환하였다. 한편, 11세기 중반에서 12세기 중반에 걸쳐 일본 상인들이 ‘진봉’, ‘진봉선’으로 표현된 무역을 행하면서 일본에 표류되었던 고려인을 송환시켜 주었다. 고려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까지 다자이후 또는 그 관할 아래에 있던 쓰시마와 진봉이라 불리는 조공무역이 이어졌다.⁵⁸⁾

그런데 일본의 교류와 교역을 위한 공식 창구로 동남해도부서(東南海都鄙署)가 태조 22년(939)에 경주에 설치되었다가, 문종 32년(1078)에 김해로 옮겼다.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주와 김해로 옮겨졌지만, 동남해 연안 지역이 일본과의 교류에서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해에 일본 사절과 상인을 위한 객관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현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⁹⁾ 또한 인근에 동남해도부서의 관사와

何所而來 曰 我等是金州界人 向有一比丘到我云 我住東京衆生寺久矣 欲以四事之難緣化到此 是以歛施隣閭 得米六碩鹽四碩負載而來”

57) 김기섭 외, 『일본 고증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해안, 2005, 514~517쪽.

58) 장동익, 『일본고증세 고려자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48~52쪽.

주둔 병력이 주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해 연해안은 일본과의 외교, 무역과 관련하여 증시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기에 일본과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지만, 고려 국가로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고려와 일본과의 불교 교류는 외교 관계와 마찬가지로 활발하지 않지만 부분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고려 승려들이 일본에 진출하고자 했던 예로는 광종 24년(973)에 균여의 죽음과 관련되어 어떤 승려가 현몽(現夢)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례가 있다.⁶¹⁾ 이 사례는 설화적인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고려 초에 불교계에서 일본과의 교류가 추구되었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 34년(1247)에 고려의 요연법명(了然法明)이 남송의 임제종을 대표하는 선승인 무준사범(無準師範)을 찾아갔다가 상선을 타고 일본의 교토, 가마쿠라 등을 유력하였다. 그는 4년 후에 교쿠센지(玉泉寺)를 개창하고, 조동종의 도젠(道元)을 찾아가 그의 법맥을 이었다.⁶²⁾ 또한 고려 수정사(水精寺)의 공실묘공(空室妙空)이 일본에 건너가 코호 켄니치(高峰顯日, 1241~1316)의 훈도를 받았고, 엔가쿠지(圓覺寺)에 머물면서 케이호(慶芳)에게 법을 전하고 귀국하였다.⁶³⁾

이와 같이 고려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간 기록과 마찬가지로 일본 승려가 고려에 와서 교류하기도 하였다.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에 원

59) 이종봉, 「고려시대 대일교류와 부산」, 『지역과 역사』 15, 2005, 111쪽.

60) 구산우, 앞의 글(2018), 77~78쪽.

61) 『均如傳』 第十變易生死分者(『한국불교전서』 4, 516쪽), “開寶六年中 金海府使奏云 今年月日 有異僧 頂戴椀笠子 到海邊…(中略)…今欲指日本”

62) 嶺南秀恕 編, 『日本洞上聯燈錄』 1, 永平道元禪師法嗣(장동익, 앞의 책, 33쪽).

63) 『延寶傳燈錄』 19, 高麗國水精寺空室妙空禪師, 같은 책 권25, 高麗國水精寺空室妙空禪師法嗣, 卍元師蠻, 『本朝高僧傳』 33, 相州建長寺沙門慶芳傳(장동익, 앞의 책, 55쪽).

종 즉위년(1259)에 일본 승려가 찾아와 거제도의 사암에 머물던 홍변(洪辯)이 정성껏 서사한 『법화경』을 구해 가서 하카다 소후쿠지(崇福寺)에서 법화신앙을 널리 폈다는 기사가 있다.⁶⁴⁾ 나아가 고려 말에 이르면 일본사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류 목적으로 건너온 일본 승려가 보인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동남해 지역에서 쓰시마를 거쳐 기타규슈로 이어지는 불교계의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비사는 일본과의 불교 교류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기에 기비사의 위상은 어떠하였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비사의 건립 배경과 기능을 감안하면 기비사의 규모와 위상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당의 규모가 왕실 사원인 감은사보다 크다는 사실이나 금산사 향완 조성에 기비사 주지 혜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례가 주목된다.

또한 기비사 주지 혜거의 승계가 삼중대사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승계는 선종과 교종에서 모두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로 승진하고, 선종은 선사→대선사, 교종은 수좌(首座)→승통(僧統)으로 승진하였다. 삼중대사는 최고위 승계에 이르기 직전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삼중대사가 주지를 한 유가종의 사찰로는 해안사, 금산사, 천흥사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⁶⁵⁾ 주지를 맡은 인물의 비중이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기비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찰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4) 『法華靈驗傳』 卷下, 『深敬辯山人之精書』(『한국불교전서』 6, 568쪽), “山人洪辯 淳昌趙氏子 出家于曹溪中高科 往入巨濟山菴 精進持戒 一字一拜 書法華經一部 極盡莊嚴 朝夕禮拜供養 適有倭國僧 來見懇求之 乃付囑流通 其僧頂戴 資歸本國 船中放光 到已安崇福寺道場中 衆僧禮敬 感得舍利 後一年道人法行隨使 舸入彼國 親見而來 卽中統元年庚申也 出海東傳弘錄”

65)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170쪽.

IV. 맺음말

‘만덕사지’라는 명칭은 『고려사』에 석기를 유배하였던 만덕사를 같은 사찰로 보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고려시기에 만덕사가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만으로는 석기가 유배된 만덕사가 어느 곳 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더욱이 고려시대에 백련결사의 중심지였던 강진 만덕사가 훨씬 유명하였고 실제 석기의 유배지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만덕동 사지를 만덕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 따라 기비사라는 명문 기와가 적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만덕동 사지는 기비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비사라는 명칭은 『장아함경』에 보이며, 불교의 정통성이나 사찰의 신성성을 내세우기 위해 지었던 사찰 명칭으로서 경주의 기원사, 기림사 등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기비사 주지인 혜거가 1178년에 금산사 미륵전에 안치한 향로를 조성하였던 기록을 통해 기비사의 소속 종파가 유가종으로 보인다.

한편, 기비사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와, 도자 등 각종 유물과 함께 정치사, 불교사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기비사는 고려 초에 건립되어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왕조는 후삼국을 통합한 후에 지방관을 제대로 파견하지 못하였던 현실에서 개경과 가장 먼 곳인 이 지역의 지방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비사를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비사는 유가종 소속이므로 미륵신앙을 표방한 사원이라는 일반적 인 기능과 함께 교통로와 관련된 사회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본과의 불교 교류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비사는 보를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 수로와 동남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교통 네트워크의 결절점이라는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시

기에는 낙동강 하구인 독산에 일본의 교류와 교역을 위한 공식 창구인 동남해도부서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외교 교류와 함께 한반도 동남해 지역에서 쓰시마를 거쳐 키타규슈로 이어지는 불교계의 교류가 있었다. 기비사는 일본과의 불교 교류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기비사의 명칭과 유래, 사원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데다가 지역불교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실에서 단편적인 명문 기와 자료를 토대로 불교사, 정치사의 흐름과 연관시켜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밝혀보았다. 향후 고고학, 건축사, 미술사, 도자사 등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사지 연구에 대한 융합적,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역사상을 규명하는 것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文集叢刊』, 『高麗名賢集』, 『東文選』, 『韓國佛教全書』, 『한국사찰전서』, 『大正新脩大藏經』, 『조선금석총람』, 『한국금석전문』, 『조선사찰사료』

2. 저서

김기섭 외, 『일본 고중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해안, 2005.
문화재청, 『한국사지총람』 上, 下, 2010.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 보고서』 상, 하, 2019.
부산박물관, 『釜山萬德寺址』, 1993.
_____, 『釜山萬德寺址 II』, 1998.
_____, 『부산만덕사지당간지주 발굴조사보고서』, 2016.
북천박물관, 『釜山萬德寺址 III』, 2007.

장동익, 『일본고증세 고려자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 논문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도서문화』 36, 2010.

구산우,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구조」, 『향도부산』 20, 2004.

_____,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봉림산문」,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_____, 「고려시기 김해의 지방행정구조」,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김기민,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출토 기와」, 『부산 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 부산박물관, 2015.

김병인, 「고려시대 사원의 교통기능」, 『전남사학』 13, 1999.

김형수, 「고려전기 사원전 경영과 수원승도」, 『한국중세사연구』 2, 1995.

박경원, 「만덕사지 삼층석탑 복원이건」,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연보』 3(1), 1981.

신호철, 『후백제 전환정권 연구』, 일조각, 1993.

이근열, 「부산 기비현(基比峴) 말뚝 연구」, 『지명학』 13, 2007.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종봉, 「나말여초 양주의 동향과 김인훈」, 『지역과 역사』 13, 2004.

_____, 「고려시대 대일교류와 부산」, 『지역과 역사』 15, 2005.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정미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사상계의 동향」, 『향도부산』 19, 2003.

최연식, 「고려시대 원관사찰의 출현과 변천과정」, 『이화사학연구』 52, 2016.

최정혜, 「부산 만덕동사지 사명 고찰」, 『박물관연구논집』 11, 2004.

_____,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기와」, 『부산 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 부산박물관, 2015.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한정훈, 「고려·조선초기 낙동강유역 교통 네트워크 연구」, 『대구사학』 110, 2013.

_____,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해안, 2013.

勝浦令子, 『日本古代の僧尼と社會』, 吉川弘文館, 2000.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제6권 隋唐의佛教, 東京大學出版會, 1999.

| Abstract |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Gibisa Temple during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Cho, Myung-Je

The name of Mandeoksa(萬德寺) Temple Site originated from the record in Goryeosa(高麗史) that Seokgi(釋器), the son of King Chunghye, was exiled to Mandeoksa Temple. However, in the pre-modern period, there were several temples called Mandeoksa Temple nationwide, and Mandeoksa Temple in the Goryeo Dynasty was famous as the center of a religious association led by Yose(了世) in Gangjin, Jeollanam-do. Therefore, there is no basis for considering Mandeoksa Temple, to which Seokgi was exiled, as a temple in Busan. Moreover, the claim that name of temple is Mandeoksa cannot be valid as a tile engraved with Gibisa(祇毗寺) Temple was uncovered by an excavation team of the Busan Museum,

The origin of the name, Gibisa Temple, can be traced back to the place known as where Buddha preached as described in Digha Nikāya. This is also the case with the name such as Giwonsa(祇園寺) Temple and Girimsa(祇林寺) Temple, which were built in Gyeongju during the period of Silla dynasty. In 1178, the chief monk of Gibisa Temple played a central role in creating the incense burner of Geumsansa(金山寺) Temple. Considering this, Gibisa Temple can be seen as one of the temples that belonged to the Yuga Order(瑜伽宗).

The background of the construction of Gibisa Temple is related to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southeast coast and the downstream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Later Three Kingdoms War. The Gibisa

Temple seemed to be built by the active support of the new regime, Goryeo Dynasty as an attempt to control the area of down the Nakdonggang River, the former centre of power struggle between Goryeo and Hubaekje.

Gibisa Temple is located on a pass that connects Dongnae and Gupo, and leads to Busan, Yangsan, and Gimhae through land and waterways, and further connected to the Southeast Sea route. Gibisa Temple functioned as lodgings, which can be attributed to its location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network. Furthermore, Gibisa carried out various social projects for the poor and travelers, and had a financial foundation for implementing such projects. Meanwhile, it is presumed that Gibisa Temple performed functions related to Buddhist exchanges with Japan.

Key Words : Gibisa(祇毗寺), Yuga Order(瑜伽宗), Girimsa(祇林寺), the transport network, social projects